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3. 1. 5. (목) 14:00~16:30
2. 장소 : 비대면 회의(Zoom Cloud Meeting)
3. 참석자(총 14명 중 12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김형중(의장), 박상도, 한승준, 민병걸
 - 나. 직원대표 : 조현미(부의장), 이혜숙
 - 다. 학생대표 : 오윤영, 김혜정
 - 라. 조교대표 : 박신혜
 - 마. 동 문 : 이귀우
 - 바. 외 부 : 김태현, 백성기
4. 불참자 : 김종현(교원대표), 최형심(동문대표)
5. 심의 안건
 - 가. 단과대학별 전공개방형 광역모집단위 운영(안)
 - 나. 대학혁신을 위한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안)
 - 다. 직제 개편(안)
6. 자문 안건
 - 가. 2022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 나. 2023학년도 자금 예산(안)

1. 개회

의장이 코로나19 재유행 및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에서 비대면 회의로 변경하여 진행함을 설명하다.

2. 심의 안건 - 단과대학별 전공개방형 광역모집단위 운영(안)

기획처장이 「단과대학별 전공개방형 광역모집단위 운영」 (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제시된 의견 중 우려와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 해당 안건이 결과적으로 제시한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 － 모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구성원들과 공청회를 진행할 당시 언급되었던 타 대학 모집단위 광역화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모집비율을 보였다. 학생들의 전공선택 보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밀 또는 과소학과에 대한 대책 및 특정 학과에 대한 쏠

림 현상에 대한 예측과 대비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개방형 모집단위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문제점)등을 해소하기 위한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본교에서 운영 중인 자율전공학부 제도와 해당 안전인 전공개방형 광역모집단위가 유사한 제도라 생각된다. 두 제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자율전공학부 제도를 다년간 진행하면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과정 등을 거쳤는지 궁금하다. 또한 제도 시행 목적 중 하나인 학생들의 유지충원율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도탈락율을 비교하였을 때, 자율전공학부의 중도탈락율이 일반전공의 그것보다 낮은 경우에 이 제도의 시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자율전공학부 제도와 전공개방형 광역모집단위 제도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전공개방형 광역모집단위 제도는 단과대별로 모집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자율전공학부 운영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자율전공학부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학평의회 심의 안전 중 하나인 직제 개편(안)으로 ‘데이터혁신실’이라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조직을 신설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서 언급한 T/F를 운영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 보통 1학년 과목은 학과 과목들을 연계해서 듣는 것을 전제로 기초를 다지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신입생이 다양한 전공별 과목을 1년 안에 체험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학생들이 1년 내에 단과 대학 내 전공 선택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
- 수강신청은 일반 전공을 선택하여 들어온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특정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없이 선택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전공 선택에 앞서 종합적인 파악 및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 비교과 및 별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학과, 다양한 과목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광역모집단위 운영은 본교를 포함한 몇 개의 학교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대학들의 전반적인 흐름인지 궁금하다. 만약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면 제도 도입에 따라 도움이 된 부분 등 확인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최근 대학의 큰 흐름인 것은 맞다. 교육부에서도 모집단위 광역화 부분을 대학 혁신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중장기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본적으로 학과 간의 장벽을 없애고 융합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과를 경험하고 선택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
- 일정 비율 학생에 한해서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심한 것은 보이나, 타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집단위 광역화에는 미치지 못한다 생각된다. 또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각 학과의 수치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해 진행하는 것은 트렌드에 맞춰 혁신과 변혁을 이루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 이 정도의 모집단위 광역화 학생 선발 수치는 학사 제도 중 하나인 전과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 모집단위 광역화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 등의 취지와 학생 유입이라는 점에서 학과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처음부터 높은 비율을 책정할 수 없지만, 대학의 환경 변화 및 구조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어져 점차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 단과대학별 전공개방형 광역모집단위 운영(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심의 안건 - 대학혁신을 위한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안)

기획처장이 「대학혁신을 위한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 (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본교 특성화 혁신 5대 방안 중 융합화라는 취지에 입각해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학과 개편의 수준에서 눈에 띄는 융합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심리학과 의 경우 교육심리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학부로 개편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교육심리의 주안점은 교육심리학적 내용을 교육 현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학문을 하는 것인데, 교직이 폐지되고 교육 현장에 대한 부분이 빠진다면 교육심리학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한 정보보호학부의 경우 사이버보안전공 및 개인정보보호전공이 타 학과 학생들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영역을 넓히는데 무리가 없는가
- 학과 간의 융합이 진행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는 미미한 변화이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심리학과 의 경우 교직 과정을 포기하고 응용심리와 인지과학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며 심리·인지과학으로 학과명에도 변화를 주지만, 교육심리를 담당한 교원들이 있기에 기존의 교육-심리에 대한 부분을 100%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보보호학부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역시 어떤 기업이나 기관, 혹은 정부 부처 등에서 정보 보안 관리 체계 학습 시에 법, 제도, 행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반영된다. 그리하여 교과목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당 분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기업은 정보보호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사회과학 분야 전공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공이 개설되었다 생각한다. 타 학과 학생들은 전과보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형태로 해당 지식을 습득한 후 취업 등에 도움을 받는 체계로 가면서 본교에 도움이 되는 전공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학혁신을 위한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심의 안건 - 직제 개편(안)

경영기획팀장이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데이터혁신실’의 핵심 업무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이나 혹은 학생 종단형 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어려운 영역인데, 인력 구성이나 새롭게 구성하는 조직의 형태를 살펴봤을 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처음 진행하였을 때는 데이터전문가를 채용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교내 교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워킹그룹’을 데이터혁신실 안에 포함하였다. 이는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 및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교원을 모아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방법, 분석에 따른 결과 활용 방안들을 논의·보완 등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행정학과에서 참여하는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 쪽에서도 ‘데이터혁신실’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자문 안건 - 2022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22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22학년도 회계가 거의 끝나는 무렵에 진행되고, 또 자문 안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등록금 수입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의 중도탈락율과 연관이 된다면 학교에 좋지 않은 데이터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인 상황에서 학생 수까지 줄어들고 다른 수입원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예산의 감소가 아닌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인건비의 감소는 결국 교직원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 불만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지출을 줄여만 나갈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국고 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고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본교 현실을 반영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고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협력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수입에 대한 다변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중도탈락율 등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고 비율은 2023년도에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고, 손실 부분을 줄일 있는 방법의 모색 등 본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관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자문 안전 - 2023학년도 자금 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23학년도 자금 예산(안) 대하여 설명하다.

- 재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2022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23년도에는 어느 수준만큼 확보가 가능하다고 계획하는지 궁금하다
- 교육부에서 1월 말, 가이드라인 및 2023학년도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어 증액되었지만, 사립대학의 증액 비율이 지방대, 국립대에 비하여 크지 않다. 또한 평가에 대한 증액이 아닌 여러 포물러에 의하여 증액 비율을 산정할 것이라 예상한다.
- 등록금 수입 중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학생들 현황 및 등록금 책정 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앞으로 많은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위한 본격적인 국제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여대는 타 대학에 비해 조금 뒤쳐져 있고 이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 학생은 정보공시 기준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과정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 유치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외

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일반 학부생들과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 2023학년도부터 외국인 학생 선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변경과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아웃바운드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국제화 역량 지수를 높이려고 한다.

7.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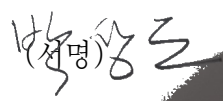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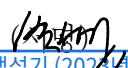
- 의장이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위원들이 승인하다.

8. 차기 회의 일정

-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4월경, 2022학년도 결산 자문을 위해 차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의장이 16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1월 5일

의 장	김 형 중	(서명)  김형중 (2023년 1월 12일 14:42 GMT+9)
부 의 장	조 현 미	(서명)  조현미 (2023년 1월 12일 15:10 GMT+9)
평 의 원	박 상 도	(서명) 
평 의 원	한 승 준	(서명)  한승준 (2023년 1월 12일 10:30 GMT+9)
평 의 원	민 병 결	(서명)  민병결 (2023년 1월 12일 10:35 GMT+9)
평 의 원	이 혜 숙	(서명)  이혜숙 (2023년 1월 12일 13:04 GMT+9)
평 의 원	박 신 혜	(서명) 
평 의 원	오 윤 영	(서명) 
평 의 원	김 혜 정	(서명)  김혜정 (2023년 1월 12일 20:00 GMT+9)
평 의 원	이 귀 우	(서명) 
평 의 원	김 태 현	(서명)  김태현 (2023년 1월 12일 16:01 GMT+9)
평 의 원	백 성 기	(서명)  백성기 (2023년 1월 12일 14:46 GMT+9)
간 사	하 성 호	(서명) 